

“황금바다 프로젝트 추진...수산업 1조원시대 열겠다”

민선 6기 2년 설계
신 우철 완도군수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선 6기 취임 직후부터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군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 또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를 넘나들면서 1년 동안 총 7만1000km를 출장으로 이동했다. 이는 지구 둘 1.8바퀴 돌 수 있는 거리다.

신 군수는 “소통과 화합의 군정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점차 신뢰와 배려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연속된다면 소중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12개 읍·면 군민과의 대화 24회, 읍·면으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6회, 외딴섬 방문 5회, 열린 군수실 운영에 따른 민원인 접견 732회 2100명을 면담했으며, 총 건의사항 347건을 접수해 처리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그 결과 각종 공모사업에서 24개 분야 1080여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 중앙 및 도



군민 신뢰·소통·화합 행정 강화
열린군수실 운영 2100여명 방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 만전

주관 각종 평가에서 18건의 굵직한 상을 수상했다.

수산 전문가인 신 군수는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축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복을 비롯해 광어, 해조류 등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을 위한 ‘황금바다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산업 1조원 시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신 군수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연간 370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 전복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장해역 완도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주제관을 활용해 전국 최초의 ‘해조류전시실’을 개장했다. 지난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미역 데이’를 선포

하고, 어버이날을 ‘미역 먹는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18년을 이어온 장보고 축제는 올해부터 ‘수산물’이라는 컨셉을 더해 장보고수산물축제로 변화를 시도했다.

신 군수는 “수산산업의 미래는 청정바다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선포하고 전 군민과 함께 바다 청소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완도항에 산지저점 유통센터(FPC) 건립에 나서는 한편 꽃게·오징어 등 연근해 조업선단의 완도항 유치도 적극 추진중이다.

군은 수산업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에도 힘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을 선포했으며, 이를 위해 15개 신규사업을 발굴, 총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농·축산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완도형 6차 산업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산도 슬로푸드 명품화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휴양·힐링·체험 등을 테마로 한 다양한 아이템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군은 5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섬마다 특성을 살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완도바다 섬자리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특히 올해를 ‘중국 관광객 유치 원년’으로 삼고, 요커(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신 군수는 민선 6기 지난 1년간의 군정 수행을 바탕으로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어장 재배치 및 환경개선, 신품종 개발, 재해대비 용·복합 양식단지를 조성해 전복산업과 해조류산업이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속가능 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를 대비해 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을 얻고, 해외시장 개척과 해조류의 가치제고, 소비촉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물론 완도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글로벌 행사가 되도록 준비한다는 각오다.

신우철 군수는 “취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부자, 관광, 행복, 희망완도 건설을 위해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동감 있게 군정을 추진하겠다”며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



완도 청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에서 독서 골든벨 등 게임을 진행하며 독서 환경캠프를 갖고 있다. <완도 청산초등학교 제공>

완도 청산초등학교 ‘독서·환경캠프’ 성료

학생·학부모·교사 등 참여...작가와 만남·독서 골든벨도

완도 청산초등학교(교장 안승민)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제2회 독서·환경캠프’를 개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독서와 토론, 환경보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학생 58명(모도분교장 포함)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독서의 날’인 첫 날에는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로 이동해 숙소를 배정받고 캠프 선서문을 낭독했다. 이어 독서 베이

스칼라(독서 런닝맨, 엽서 만들기, 북아트)로 팀을 나눠 실시했고, ‘복불복 저녁 식사 재료 쟁탈 환경퀴즈 대회’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시간에는 ‘바다가 그린 그림’ 저자인 정대성씨를 초대해 좋은 글쓰기 강연 및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고, ‘독서 골든벨’로 마무리했다.

‘환경의 날’인 이틀날에는 아침식사와 조화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확인하

고 캠프 소감문 작성과 함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신홍리 해수욕장에서 기상상황으로 인해 물놀이 대신 맛조개잡기 체험을 했고, 환경정화 활동도 전개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파견강사의 심폐소생술 교육도 마쳤다.

안승민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캠프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독서·토론크나 환경 캠프에 관심이 많은 학교와 연계해 질 높은 방법을 모색하고 서로 일반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

진도군 저소득층 주거개선 주택 매칭그랜트 지원사업

진도군과 지역 기관·사회단체가 손을 잡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나섰다. 진도군은 지난편 관마리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의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행정지원을 하고, (사)아드코리아와 지산면, 진도 지역자활센터, 관마리청년회, 진도 지역사회봉사회 등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진도군 희망복지지원단이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택 매칭 그랜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민간에서 1700만원을 후원해 추진된다. ‘주택 매칭 그랜트 지원사업’은 공동모금회와 민간에서 신축 사업비를 50 : 50으로 분담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내의 기관·사회 단체 등 지역자원을 통합해 지역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진도군은 지속적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민·관 단체의 참여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자원을 발굴, 지역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 가사혈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준공 군, 29억 들여 태양광·풍력 전기 저장시스템 설치

진도군 가사혈도에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최근 준공됐다.

조도면 가사도의 부속 섬인 가사혈도는 10가구, 19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섬으로 지금까지는 소규모 태양광과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발전해 TV도 맛껏 시청할 수 없었으며, 냉장시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진도군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년여의 공사 끝에 올해 2월 시운전을 시작으로 지난 24일부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태양광 60kW, 풍력 6kW 규모에 대응량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이 설치됐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ESS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섬 어가에 출력을 일정하게 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주민들은 “전기가 섬에 들어오니 이제는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말리지 못해 썩히거나,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한편 진도군은 정부와 전남도, 한국전력 공사 등과 연계해 조도면 동거차도에 ‘에너지 자립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국립남도국악원, 내일부터 이틀간 ‘여름국악 축제’

국립남도국악원이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대극장 전악당 무대에서 ‘여름국악 축제’를 연다. ‘흥 더하기 신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악축제는 휴가철을 맞아 남도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 국내외 연수 참가자를 위해 마련됐다.

31일 오후 7시 공연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국악단 (사)도드리 연주모 국악 관현악곡 ‘섬진강’을 시작으로 국악 가요 ‘작은 어부’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8월1일 오후 7시 공연에는 전북에서 활발한 공연무대를 갖는 (사)나라 관현악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화순~광주 동구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지원2동)
코 스 | 너릿재 옛길 주차장~너릿재~화순 소아르 갤러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30,000원
기 념 품 | 타이즈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주)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 마라톤세상
주관 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